

## 본문에서 발견하기

- 바울은 성도들의 무엇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_\_\_\_\_
- 그것이 밝아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 바울이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내용은 몇 가지입니까? 각각 무엇입니까?  
\_\_\_\_\_
-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표현에서 ‘부르심’과 ‘소망’은 각각 무엇을 가리킵니까?  
\_\_\_\_\_
-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누구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_\_\_\_\_
-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_\_\_\_\_
- 그 능력은 누구에게 베풀어진 것이라고 말합니까?  
\_\_\_\_\_
-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_\_\_\_\_
-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은 현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_\_\_\_\_
-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사실은 삶에 어떤 확신을 주니까?  
\_\_\_\_\_
- 본문에 나타난 복음은 무엇입니까?  
\_\_\_\_\_

## 적용하기

-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능력이 됩니까?
- 내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지난 주 말씀묵상 (에베소서 1:15-19)

-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증거들인 믿음과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의 기도와 함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복을 더욱 깊이, 더욱 밝히 깨닫게 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 믿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믿음과 사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즉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의 모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세서 1장에서 같은 고백을 합니다.
-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변하고 그 속에서 복음이 역사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가지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 있는 믿음’이고 둘째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 ‘주 예수 안에 믿음’이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 때 우리가 그 분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며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란 믿는 자들뿐 아니라 이웃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의 대상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된 믿는 자들, 즉 성도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 하지만 바울이 염두에 둔 모든 성도는 1차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적 장벽과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장벽이 모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 이 믿음과 사랑은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믿음에서만 그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실천할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믿음이 근거가 되어야 하며, 믿음에서 힘을 얻어서 믿음이 지시하고 가리키는 방향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에서 출발하고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